

율법과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

이사야1:11-17, 히브리서10:12-14

정윤돈 목사님

“태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저희를 창조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놓쳐서 사단에게 속음으로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강단 메시지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어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의 제자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율법과 제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을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다.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자는 구약 율법에 박식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전통유대인이 있었는데, 행위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메시아니즘)들은 당시 전통 유대인들과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완전 불신자로 살다가 돌아온 성도들이 있다. 유교와 제사문화에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도 있다. 타종교나 무속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 분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메시아니즘들이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유희와 갈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오늘 다시 한 번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1. 먼저, 유대주의자들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보았던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온 내용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만일 주

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였다. 사실 이 때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흔들리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히브리서는 가장 처음 1장 1절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만물의 최종적인 주인) 또 ②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창조주) ③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드러난 영광) ④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하나님의 형상) 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⑥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대속의 구원자) ⑦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승리자입니다). 그 분이 우리의 대장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신다.

(2) 그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천사숭배 사상이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천사는 우리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천주교는 지금도 천사를 숭배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5장 4절의 실로암 못과 38년 된 병자의 일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천사를 더 높게 생각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3)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리스도 보다 뛰어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장 5절에서 6절이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4)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 3장에서 5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일이고 고통이며 짐이었다. 완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 4장 10절이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이 아니라 놀리지 않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5) 성막과 피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5장부터 10장의 내용이다. 구약시대의 유대백성들은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고, 그 피를 뿌렸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와 짐승의 피는 인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정한 대속의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이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 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천국)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부활 천국입성)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2.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이다. 여기서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적인 모든 것을 고치고 변화시키며 치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의도)을 밝혀낸다는 것이다.

(2) 히브리서 13장 8절이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3)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내세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지옥, 천국)이 있으리니’

3.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서밋들이 갖추어야 할 전도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참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와 서밋타임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예배, 다락방, 지교회, 서밋타임)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래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뻔뻔함도 필요할 때가 많다.

(2)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에는 구약의 모든 훌륭한 인물들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말하고 있다. 믿음만이 실상, 다른 것들은 허상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분들은 모두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전도자의 삶을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는 훈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는 형제사랑을 지속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4)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결혼과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어서 돈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영적지도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현명한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요, 믿음의 자세이다. 특히 중직자들이 꼭 각인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다.

오늘도 히브리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CVDIP를 발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구원의 언약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얻어진다는 믿음의 언약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증거하는 237운동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의 꿈은 전 세계에 RUTC운동을 펼쳐서 사탄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매일 조금만 나의 서밋타임을 갖는다면 미래의 응답이 앞당겨 보일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성경의 율법주의를 복음과 그리스도로 완전히 재해석한 ‘히브리서’라는 복음적 신학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 한주간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주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한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령충만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하는 주역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